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ISSUE **154**
2020 FEBRUARY



모두의 나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16개 약속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된
배우 이순재



내 인생의 한마디

영화 홍보 마케팅사 퍼스트룩
(1st look) 이윤정·강효미 공동대표

희망2020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를 1도 높인
작은 기적의 순간

착한기업

기업·직원이 나눔 일심동체
보여주는 동우화인캠(주)



함께하면 더 행복한 나눔

사랑의열매를 통한 기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과 주민센터뿐 아니라 공항 가는 길에도 사랑의열매 기부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면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내게 맞는 기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나눔의 행복에 동참해보세요.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0g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



hye_mi0213

우체국에 문서 부치러 갔다가
맥주 마실 돈 아껴서
만원 기부하고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 #제발좋은곳에쓰이기를

yunsoo0824

Indonesia02. 두 번째 학교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활동! 두근두근 떨렸던 독무!
Baby Shark!!

#청소년멘토링해외봉사활동
#청소년멘토링해외봉사
#인도네시아해외봉사
#RCY #청소년적십자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AMSUNG
#사랑의열매

yoohwan0303

#따뜻했던 #30대 #첫 #설날 #꿈
#연탄봉사 #봉사활동

oocrystal1211

아~~ 열매 먹기.

#공원 #나들이 #산책
#사랑의열매
#겨울인가 #봄인가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잉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5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4 2020. 02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2월 / 통권 15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진 등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12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16개 약속

13 사랑의열매의 독자적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14 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일할 맛 나는 좋은 일자리,
우리도 얻을 수 있나요?



01 나눔태그

04 희망2020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를 1도 높인
작은 기적의 순간

08 커버스토리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된 배우 이순재

18 내 인생의 한마디
영화 홍보 마케팅사 퍼스트룩(1st look)
이윤정·강효미 공동대표

2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5년째 공병 판 돈 기부하는
김정선·배연임 부부



2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의정부시일시청소년심터 포텐

28 **착한기업**
기업·직원이 나눔 일심동체 보여주는
동우화인켄(주)

32 **맞춤식 방문 회계 교육**
"회계 마스터의 꿈, 찾아가는
회계지원단이 이뤄드립니다"

34 **나눔 트렌드**
나눔 판도를 바꾸는 新인류
밀레니얼 세대

36 **내가 만난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가 하는 일,
이제야 비로소 알았네

38 **나눔리더**
용감한 가수 에이톤 나눔리더 가입

40 **나눔 현장**
김정숙 여사, 가수 설현 등
사랑의열매 '착한마을' 방문

41 **광고 이야기**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42 **나눔 소식 1**
제12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43 **나눔 소식 2**
사랑의열매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 4기 해단식

44 **전국 지회 뉴스**

54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73일 동안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

사랑의 온도를 1도 높인 작은 기적의 순간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할 때마다 따뜻한 나눔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준다. 이번 '희망2020나눔캠페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 온도를 높여준, 작지만 큰 사랑을 소개한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대회 상금을 전액 기부한 초등학교생들

대구영신초등학교 5학년 김경모, 임영채, 최예린 학생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20만 원을 기탁했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 대회에 참가해 교육감상을 수상한 'Thanky'팀이다.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생 317개 팀(951명), 중학생 108개 팀(216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Thanky 팀은 프로젝트형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부상으로 받은 20만 원은 희망나눔캠페

인에 전액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Thanky팀 학생들은 "대회에서 주어진 과제는 어린이 시설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며, "앞으로도 용돈을 모아 꾸준히 기부하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겠다"고 말해 주변 어른들이 기특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후문이다.



15년째 새해 첫날 기부하는 강충걸 씨 가족

2005년부터 지금까지 새해 첫날이면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가족이 있다. (주)파나컴 대표이자 (사)부산국제장애인협회 회장인 강충걸 씨와 그의 아내 박영희 씨, 아들 강예성 씨가 그 주인공이다. 매년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모은 성금을 15년 동안 기부하며 새해 첫날을 열고 있다. 앞으로 부부와 자녀, 이후 손자까지 대를 이어 기부하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다.



2020년 연예인 1호 아너가 된 배우 이서진

배우 이서진(후크엔터테인먼트)이 지난 1월 1일 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이로써 2020년 연예인 1호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약하게라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 주변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도둑맞은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 다시 제자리로

전북 전주시에 2000년부터 매년 연말 노송동주민센터 앞에 기부금을 놓고 가는 익명의 독지가인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모두를 분노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 2명이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기부금이 든 종이 박스를 들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 지 4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았고, 성금도 전액 회수했다. 회수한 기부금은 6,016만 3,510원으로 지난 20년간 누적된 기부금은 6억 원을 넘어섰다. 기부금은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익명 기부자

2005년부터 동전을 기부해온 부산의 익명 기부자가 이번 캠페인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해운대구 반송 2동행정복지센터로 동전이 종류별로 가득 담긴 종이 상자가 배달됐다. 72만여 원의 기부금은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 밖에 전북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할머니가 30만 원의 봉투를 전달한 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성급히 나가셨고, 아버지와 같이 온 여중생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4만 8,200원을 두고 가는 등 조용한 기부가 이어졌다. ❀





엄숙한 시무식 대신 기부로 새해를 시작한 유진그룹

새해가 시작되면 각 기업마다 한자리에 모여 신년사를 듣는 엄숙한 시무식을 진행한다. 유진그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2일 서울 여의도본사에는 아침 일찍부터 나온 유경선 회장과 임원들이 출근하는 모든 직원을 맞이하며 일일이 악수하고 덕담을 나눴다. 그리고 같은 날, 사랑의열매에 성금 3억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0 나눔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지난해에도 연말에 집중되는 기부를 계속 이어가는 의미에서 신년 첫 행사로 사랑의열매에 성금 3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도서 <진심을 팝니다> 인세 전액 기부

지난해 12월 30일 <진심을 팝니다>의 저자 장인수 (주)조인의 대표이사 부회장이자 전 오비맥주 부회장이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기부금은 장 부회장이 몸으로 체득한 자신만의 영업 비법을 담은 <진심을 팝니다> 인세 전액과 그의 기부금 1,000만 원을 더해 마련했다. 고졸 출신의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 오비맥주 부사장과 대표이사를 지낸 전설적 인물인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책에 담아 후배에게 전하고, 그 책의 인세까지 기부하는 진정한 '나눔리더'다운 면모를 보였다.



To. 사랑의열매, 그리고 기부자님들 늘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열매는 특별한 선물과 편지를 받았다. 지난해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받은 수혜자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낸 것.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편지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쓴 손 편지를 보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감동의 열매 케이크

“야간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빨리 들어가면 무섭기도 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만 해서 지루한데, 야간 프로그램에서 공예나 독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독서를 하면서 감상문도 쓰는데 주변에서 글 쓰는 실력이 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 할매 할매의 날 글쓰기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친구들과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야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집에 가려면 밤이라 깜깜한데 차랑까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14세 학생

짧지만 진심이 담긴 크리스마스카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금한 돈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써주시고, 저희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자라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어른이 될게요. 지켜봐주세요.”

- 지역아동센터의 11세 학생



지난해 연말에 받은 크리스마스카드. 11세 아이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했다.



정말 생사가 엮였을때:
주어진 행복과 평안 감사하길
세상처럼 위험하고 정다운 마음으로 주어져야
모든 이해를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합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소리를 주고 받을
모든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 2020년 1월 20일
희망 2020년 1월 20일

지난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보낸 연하장. 혹한기가 지나면 사랑의열매를 찾아와 인사하고 싶다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희망을 전해준 새해 연하장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아 남몰래 눈시울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여러분이 곁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용기와 아낌없는 도움을 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광고 모델로 전액 기부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된 배우 이순재

서진이에게도 말했어요
“너, 참 좋은 일 했다”



배우 이순재가 자신이 출연한 광고의 모델료를 전액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평생 꼭 한 번은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하게 돼 기쁘다면서 말이다.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모습이 시종일관 환하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답게. 바로 이순재다! 글 강은진 사진 박종렬

국내 최초, 광고주와 전속 모델이 함께 기부

〈사랑의열매〉 2월호 표지 모델로 나선 배우 이순재! 카메라 앞에서 시종일관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이른 봄의 따뜻한 햇살 같다. 그렇게 주변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던가. 이순재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은 늘 생각하고 있었지요. 나도 한 번은 꼭 해야지 마음먹은 지 꽤 됐죠. 근데 일시불은 부담되니까 분납이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던 걸 이제야 하게 됐네요. 좋은 기회에, 우리 할멈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웃음)”

사회 저명인사부터 주변의 아는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이순재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직접 가입하고 보니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다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이순재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광고주와 동시 기부로 진행돼 더 큰 화제를 모았다. 이순재가 광고 출연 모델료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광고주인 명륜진사갈비가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것. 광고주와 전속 모델이 함께 나눔을 실천한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 좋은 의미의 책이어서 각별해

“명륜진사갈비가 같이 하자고 해서 나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터라 의기투합하게 된 거죠. 처음엔 외식 브랜드라 잘 몰랐는데... 가만 보니 사회 기여에도 애쓰더라고요. 그런 정신을 유지한다면 같이 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이순재는 다른 이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소식을 기사로 접할 때마다 늘 부러운 마음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좋은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이순재의 각별한 후배인 배우 이서진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직접 만나 인사를 건넬 정도.

“얼마 전 있었던 고아의 날 행사에서 서진을 만났어요. ‘너, 참 좋은 일 했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씩 웃고 말더라고요. 표현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직종에서도 많은 분이 참여하니 사랑의열매부터 아너 소사이어티까지 잘 알

“
많은 분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부러웠어요. 좋은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늘 생각해온 일이지만, 이제라도 하게 돼 사회적 의무를 다한 것 같아요. 우리 할멈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1 이순재와 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 가입식 기념 촬영 모습
2 이순재는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이라는 나눔 메시지를 남겼다.

고 있었지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까지, 기대되는 출발이다. 이순재는 대중 잡지가 아닌 좋은 의미의 책이기 때문에 표지 모델로 나선 것이 자신에겐 보다 각별하다고 했다. 참 고마운 말이다.

연극에 찾아오신 아버지 “그거 꼭 해야 하나?”

연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재학 시절, 단과대별로 흩어져 있던 연극반을 서울대학교 연극반으로 통합 재건하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이순재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에 출연해왔다. 출연작이 아닌 대표작조차 웬만한 배우의 필모그래피보다 많다. 그런 이순재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

“1969년 작 <님은 먼 곳에>가 제일 생각나는군요. 그 드라마 주제곡으로 김추자가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죠. 최초의 일일 드라마 <눈이 내리는 밤>도 주인공을 제가 했어요. 그다음은... 아, 최장수 일일 연속극 <보통사람들>, 최고 시청률을 찍은 <보고 또 보고>도 생각나고요. 예전에 참 좋은 작품이 많았지요.”

사극 <허준>, <이산>이나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까지, 기억에 남는 작품에 대한 질문의 답은 끝이 없었다. 물론 작품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최근에는 한 영화에서 햄스터 역을 맡아 목소리 연기도 펼쳤다. 언제나 현역인 그의 활동은 큰 감동을 준다. 이순재의 연기 인생, 그 시작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연극하는 데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거 꼭 해야 하나?’고 물어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용돈을 쥐여주시면서 ‘그래, 앞으로 될 하든 일류가 되면 밥이야 먹지 않겠느냐’ 하시더라고.”

일명 ‘판따라’라고 폼하되며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아버지의 한마디는 그가 평생 연기할 힘이 되어주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는일, 나눔

이순재는 그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조언이 될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연극쟁이들은 전부 가난했어요. 늘 어려웠죠. 그러니 아버지가 그거 꼭 해야 하느냐고 하셨지. 물론 못 하게 했어도 저는 했을 거예요.(웃음)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무엇이 되었든 한 분야에서 일류가 되면 돼요.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



“

크고 작음을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조언하고
 싶어요. 돕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해요.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 진심은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



각하는 일을 꼭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대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으면 노 개런티 출연도 마다하지 않는 이순재는 2020년을 시작하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뿐 아니라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총재로 취임하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고아 문제에도 발 벗고 나섰다. 자신의 연기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순재만의 뜨거운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마음이라고 답한다.

“배우니까, 연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모든 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기부도 그래요. 마음이에요. 뭔가 함께해보세요. 모멸의 눈으로 보던 것이 따뜻해지며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바뀐 눈빛은 정말 많은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순재는 크고 작음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조언한다. 나눔과 기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눔과 기부 아니겠냐면서 말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지닐 수 있는 일, 그 일을 함께 하자. 마지막까지 큰 어른이 되어주는 그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16개 약속



사랑의열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C-SDGs의 16개 목표를 수립했다. 16개 목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사랑의열매가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 2020년을 맞이하여 이번 호부터 1년간 매달 C-SDGs와 관련한 주요 배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랑의열매 지원 사업을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각나눔기관 참고 자료 환경부 일러스트 조성흠

사랑의열매의 독자적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국내는 물론 전세계 국가와 기업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역시 지난해 독자적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수립해 올해 배분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와 사랑의열매의 배분 지향점은 같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글로벌 사회 가치 지표로 통용되는 만큼 바로 국내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랑의열매는 지난 2019년 독자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C-SDGs)를 수립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되 사랑의열매 배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수립했으며, 배분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C-SDGs는 사랑의열매 8대 배분 과제(● 기초생계 지원 ● 교육·자립 지원 ● 주거·환경 개선 ● 보건·의료 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사회적 돌봄 강화 ● 소통과 참여 확대 ● 문화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6개 목표(17개 목표 중 17번 ‘이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제외)를 연계했다. 올해 배분 사업부터 C-SDGs를 도입해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배분을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①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일할 맛 나는 좋은 일자리, 우리도 얻을 수 있나요?

2020년 특집 기사는 매달 C-SDGs 분야별 배분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에 소개할 C-SDGs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라 정의한다. 사랑의열매는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분하고 있다.



비구직 니트(NEET) 청년 지원 사업 ①

〈청년희망챌린지〉

부산의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은 타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청년희망챌린지 사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자립 컨설팅, 자립 소양 교육, 배움 지원, 상담 지원 등 다방면으로 청년을 지원한다. 특히 이루다공동체는 청년들이 활동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스스로 지역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어쩌다짚구’, 운동을 매개로 남자 청년들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동네청년 운동클럽’ 등은 많은 청년이 참여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청년은 배움 지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잠시 길을 잃은 청년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뀌는 등 청년희망챌린지에 참여한 청년들이 저마다 눈부신 변화를 이루고 있다.





주 2회 진행되는 청년문화강좌를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비구직니트(NEET) 청년 지원 사업 ②

〈희망플랜 - 상(想:생각 상) 마이웨이〉

포항시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니트(NEET) 청년에게 단순히 진로 교육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봉사·여행·진로 탐색·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찾으며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갭이어(Gap Ye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비구직 니트 청년 20명을 선정해 청년 전용 공간 지원, 집단 및 개별 상담,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취업·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재충전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재대로 놀기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비구직니트(NEET) 청년 지원 사업 ③

〈청년베이스캠프〉

대구시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청년 니트족을 바라보며 취업 중심의 타 사업과 차별성을 둔다. 저마다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해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진로·자립 컨설팅, 개별 맞춤형 자립 훈련 교육비 지원, 직업 체험 실시 등 스스로 자립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 여행, 문화 활동, 가족 상담을 지원하며, 복지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심리 검사 후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비전스쿨에 참여한 청년들

비구직니트(NEET) 청년 지원 사업 ④

〈희망플랜 2〉

정읍사회복지관에서는 니트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접근 방안과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빈곤의 악순환으로 희망을 상실한 은둔형 니트 청년에게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회 경험 실패로 현실 회피 은둔형 니트 청년은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잠재적 니트 청년의 경우,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청년 마을 활동가를 활용한 청년 멘토 사업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쓴다. 그 외에도 교육 지원, 직업 체험, 자기 도전, 가족 관계 개선 등 니트 청년의 건전한 자립과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돕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밀알복지재단은 식자재 유통 전문 사회적 기업 청밀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한다. 소비자가 식자재 주문 애플리케이션 '마켓투게더'에서 주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가락시장물 중심 도보 30분 이내 권역을 아침 배송, 즉시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어르신들 에겐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가계소득 향상에 도움을 줘 양쪽 모두 만족감이 크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고용 카페

우리 사회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카페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한 후 다문화 카페에 취업하는 걸 돕는다. 질 좋은 직업훈련 서비스와 고용 환경 안정화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높이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력 보유 여성 마을버스 기사 취업지원사업 <여성 일자리 W-ing>

현대자동차와 한국여성재단은 경력이 단절된 경력 보유 여성이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력 보유 여성과 취약 계층 여성 가장 40명은 취업 지원 교육 등을 거쳐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받는다. 운송 산업 내 여성 일자리 근로 고용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좌) 지난해 7월에 열린 발대식 모습 (우)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전 연수를 받은 프로그램 참가자들



방송 글쓰기 교육과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

발달장애인의 재취업과 새로운 직무 교육을 위한 <커리어 점프-업 클래스2기>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인구 취업률에 비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며, 취업이 되더라도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29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분야에서 직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리스타, 정보 기술, 쉬운 뉴스, 쉬운 방송, 힐마스터까지 5개 분야에 발달장애인 30명이 참여했다. 또 프로그램 수료생과 참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역량 강화 교육도 이루어졌다.

서산시 관광두레사업 참여팀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

관광두레사업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 관광 발전 모델'이다. 서산시 관광두레사업 참여팀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향하지만, 부족한 사업비 재원과 한정된 관광두레사업 지원으로 초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서산시 관광두레PD와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4개 단체에 사업화 컨설팅과 멘토링,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며 이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과 안정된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서산시 관광두레사업 참여팀 중 한 곳인 서산시공예가협회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모습



베드메이킹 실전 연습 중인 하우스키팅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생들

정신장애인 하우스키팅·공유숙박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Clean Up! Life Up!>

정신장애인 대상 사업 중 전국 최초로 하우스키팅·공유숙박 코디네이터 관련 업무를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결하고 있다. 태화샘솟는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우스키팅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홈 청소, 오피스 청소, 키친 청소 3개 분야로 진행되는 클린마스터 양성 교육 1기도 오는 6월부터 시작한다. 또 올해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신장애인을 채용할 숙박·청소 관련 업체를 개발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



영화 홍보 마케팅사 퍼스트룩(1st look) 이윤정·강효미 공동대표

천만 관객 영화보다 더 가슴 뛰는 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영화 <백두산>이 안정적인 흥행 궤도에 올라 잠시 여유가 생긴 퍼스트룩 이윤정·강효미 공동대표는 일정을 뒤로하고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로 달려왔다.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한 아너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였다.

1월 17일에 진행된 공동 가입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을 만났다. 글이선희 사진김기남



“사랑의열매 배지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영화 홍보 마케팅사 퍼스트룩이란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영화 <도둑들>, <베테랑>, <변호인>, <명량>,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가 모두 퍼스트룩을 통해 소개됐다는 사실. 이 영화들이 개봉되고 관객을 만나기까지 포스터와 예고편은 물론 언론 홍보까지 모두 이윤정·강효미 대표의 손을 거쳤다. 퍼스트룩은 영화계 선후배로 만난 두 대표가 2005년 의기투합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이들이 맡는 영화마다 이른바 ‘대박’이 나면서 15년이 지난 지금은 영화 제작사들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홍보 마케팅사로 자리매김했다. “생각해보니 2020년이 저희 둘 다 영화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오늘 가입식 때문에 오랜만에 광화문에 왔는데 문득 사회 초년생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엔 광화문에 언론사들이 다 있었어요. 배우와 함께 언론사를 돌며 영화 홍보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들을 만나러 많이 왔거든요.

오늘은 아너 가입 때문에 광화문에 온 거라 기분이 남다르네요.” (이윤정 대표)
두 대표는 영화 홍보 마케팅은 그 영화의 첫인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회사명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자’와 ‘첫인상’이란 의미를 담아 퍼스트룩(1st look)이라 지었다. 광화문의 첫인상이 그들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사랑의열매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두 대표는 어린 시절에 본 사랑의열매 배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겨울이 시작할 무렵이면 사랑의열매 배지를 가져오셨어요. 그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죠. 오늘 아너 가입으로 오랜만에 달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특별하게 느껴져요.” (강효미 대표)
반면 이윤정 대표는 어릴 때 TV를 보면서 유명인들이 ‘왜 저 배지를 달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한 기억이 첫인상으로 남았다. 아너 가입식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다는 그는 “배지의 무게가 느껴진다”며 농담 섞인 소감을 전했다.



“나의 나눔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 강효미 대표

“나눔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 이윤정 대표





강효미 대표(왼쪽), 이윤정 대표의 아너 공동 가입식 현장

**이름도 남기지 않는
익명의 기부자들,
“이제 때가 됐구나”**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두 대표가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다. 이윤정·강효미 대표는 내 의견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중요한 일일수록 상의한다고 답했다. 또 결정된 일은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 둘 다 같아서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덧붙였다. 아너 가입 과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을 앞둔 어느 날 강 대표는 사회에 보탬이 될 만한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아너 가입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듣자마자 승낙했다. 즉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가입 의사를 남겼고, 이후 가입식까지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저력을 기부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 망설임은 전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유명인이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왔고,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 나눔에 참여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최근에 아너에 가입한 분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풍족할 때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천하면 그만큼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느꼈고요. 좋은 일을 할 거라면 이 대표님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아너 가입을 제안해드렸어요.” (강효미 대표)

그동안 두 대표는 회사 이름으로 해외 아동 지원, 연탄 나눔, 동물 복지 단체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이 큰돈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강 대표의 아너 가입 제안을 듣고 이 대표는 ‘아 맞다. 아너 소사이 어티가 있었지. 왜 그걸 이제야 떠올렸을까.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었다.

“사랑의열매 연말 모금 캠페인 시즌이 되면 익명 기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기꺼이 자기 것을 내주면서 이름조차 알리지 않는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나눔인데, 바쁘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미뤄온 게 아닐까 하는 반성도 하고요. 익명 기부자들의 나눔이 저에게 교훈을 주는 셈이죠. 그러던 중 강 대표가 아니 이야기를 하니 ‘그래 이제 가입해야 할 때구나’라고 느낀 거죠.” (이윤정 대표)

**“작은 나눔이 모이다 보면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가입식에 이윤정 대표와 강효미 대표의 옷차림은 파란색 상의,

청바지, 운동화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했다. 옷차림에 대한 말을 건네자 이윤정 대표는 자신들의 옷을 살펴보더니 “저희가 취향이 비슷해요”라고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취향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강 대표는 공통점이 많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첫 나눔 대상이 아동이었다는 것도 똑같다. 이런 공통점이 두 대표가 아동 교육과 자립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제가 타고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영화 마케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환경이었지만, 내가 당장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박봉인 마케팅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만약 타고난 환경 때문에 남들 이랑 동등한 기회나 조건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윤정 대표)

옆에서 듣고 있던 강효미 대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화 마케팅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시절에 박봉 급여를 아껴 저소득층 아동을 정기 후원했을 정도로 아동의 자립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의 불평등이 곧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여기며 어릴 때부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적어도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님 기부금은 아동 교육과 자립에 사용하길 원했어요. 저희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나눔이 모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강효미 대표)

각자 살아온 인생에 따라 나눔의 의미도 다르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다는 의미를, 기업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담긴다. 그렇다면 영화인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희가 맡은 영화들이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관객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또한 저희를 시작으로 관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관객, 시민, 그리고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영화인이 많아졌으면 해요.” (이윤정 대표)

이윤정 대표와 강효미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영화 마케팅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사랑의열매 명예의 전당에 걸린 다른 기부자의 이름을 보며 목표 하나를 추가했다.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 진심을 다해 일하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두 사람의 첫인상을 비춰보면 이 목표들을 꼭 이룰 것이란 확신이 든다. ❁

(왼쪽부터)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 (주)퍼스트룩 강효미 대표, 이윤정 대표, 서울 사랑의열매 양호영 부장이 아닌 가입식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6년째 공병 판 돈 기부하는 김정선·배연임 부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김정선·배연임 부부는 해가 바뀌면 연례행사처럼 사랑의열매에 1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한다. 그렇게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해 상황에 따라 기부금은 달라지지만, 해가 거듭해도 변치 않는 건 두 사람의 넉넉한 마음 크기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년에 한 번 저금통 확인하는 날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부부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집에 귀하게 둔 저금통의 무게를 가늠해본다. ‘이만하면 되겠지. 오늘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웬지 저금통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가야 할 ‘그곳’은 다음으로 미루어진다. 저금통의 무게가 ‘이만하면 될 때’ 제주 사랑의열매를 방문하기 때문에 김정선·배연임 부부의 매년 기부 날짜는 조금씩 다르다. 올해는 2020년 1월 6일이었다.

“저금통을 통째로 들고 가니까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죠. 사랑의열매 직원분이 확인해주는데 70만 원 마였더라. 하여튼 올해는 100만 원을 채우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사랑의열매에서 집계한 2020년 기부금은 정확히 73만 5,950원이다. 김정선 씨는 1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부부가 이 금액을 모은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돈보다 값지고 귀한 73만 5,950원이다. 부부는 매일 동네를 걸으며 빈병을 주워 판매한 금액을 1년 동안 모았다. 고령의 나이를 생각하면 두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아내 배연임 씨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하기도 쉽지 않다. “(아내의) 다리에 쇠를 박는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더뎠어서 의사 선생님이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행 보조기를 밀면서 운동 삼아 견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병도 줍는 거죠.”

그렇게 공병 30개를 모아야 현금 3,000원을 손에 질 수 있다. 공병을 팔아 받은 돈은 여지없이 저금통으로 직행한다. 김정선 씨가 하우스 등에서 일하고 받은 품삯의 일부도 저금통으로 들어간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허투루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선뜻 내놓은 것이다. 그야말로 귀히디귀히 기부금이 아닐 수 없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파

김정선 씨의 말끝에는 열은 제주도 사투리가 묻어났지만, 사실 부부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다. 1982년 제주도에 들어와 공사장, 하우스 등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렸다. 그러던 도중 남편 김정선 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부부는 20여 년 동안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 건강을 회복했다.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했죠.” 또한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찾아 집을 고쳐주고, 청소도 해주는 등 일상에서도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부는 제주 언론사에서 주최한 ‘2018제주칭찬대상’ 개인 최우수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 일부는 사랑의열매 성금에 보탤다.

“남을 돕겠다고 기부한 건데, 그걸 잘했다고 상금을 받으니까 다시 기부하는 게 맞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일부러 공병도 갖다주고 그래요. 저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남편 김정선 씨)
 지난 1월에 저금통을 기부했으니, 이제 다시 기부금을 모아야 할 터. 다만 최근 공병을 찾는 일이 더 어려워져서 부부는 걱정하고 있다. 그래도 힘이 닿는 한 계속 공병을 줌고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다. 설사 이번보다 기부금이 줄어든다고 한들 그게 뭐 대수인가. 김정선·배연임 부부의 나눔에는 액수를 초월한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



6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정선(남편)·배연임(아내) 부부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포텐

“진료버스 타고 거리 청소년에게 달려갑니다”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포텐’은 거리 청소년을 찾아가는 청소년 쉼터다.

건물에 입주한 일반 청소년 쉼터와 달리 이동형 쉼터는 건강 특화형으로 개조한 버스를 타고 야간에 활동한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멈춘 시간에 버스 문을 활짝 열고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다.

글 강보라 사진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1 진료 상담이 이루어지는 버스 내부 모습
2 진료버스 포텐 주변에서 청소년들의 거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 청소년은 대부분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이기에 본인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화나 가출 등으로 가족의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 골절이나 외상 등 확연히 드러나는 질병이 아니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아픔을 최대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거리 청소년의 건강권 문제는 이처럼 제도권 밖에서 방임·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포텐(이하 포텐)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하다.

가장 어둡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거리 청소년

진료버스 포텐은 청소년을 위한 For Ten, 잠재력을 뜻하는 청소년들의 은어 포텐 터지다를 중의적으로 담은 이름이다. 포텐은 거리로 직접 나가서 위기의 청소년을 도와주는데, 진료버스에서 전문 의료진의 1차 진료 상담과 응급처치가

이뤄진다. 위급 시에는 2차 진료 동행까지 하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텐의 이용 시간은 수·목·금요일 오후 7시~밤 12시, 토요일 밤 12시~새벽 5시로, 거리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늦은 밤 또는 새벽에도 즉각 조치할 수 있으며,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물론 이 모든 진료는 무료로 이루어진다. 아픈 청소년이면 이유 불문하고 누구든 찾아올 수 있도록 제도와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119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거리 청소년에게 의료비는 큰 문제이기에 생명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 한 119를 이용하는 거리 청소년은 없다. 청소년을 위한 의료 시설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해당 장소로 찾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리 청소년, 가출 청소년은 이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같은 지역도 찾아가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포텐이 늦은 밤 거리에 나서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권 밖에서 고립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진료버스 포텐은 의정부에서도 가장 붐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역과 어울역, 민락2지구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이곳은 최대 변화가로 거리 청소년이 많아 이들의 접근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 1 매춘이나 도박 등 거리 위험에 대한 대처법도 교육한다.
- 2 버스 교체 기념행사, 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버스를 구입한 후 건강 특화형으로 개조했다.
- 3 포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과 금연 교육
- 4 포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2차 병원으로 동행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포텐은 상담과 진료를 기본으로 각 분야의 전문 의와 상담 치료사가 요일별로 배치돼 전문적인 응대가 가능하다. 거리 청소년은 사회의 냉대나 편견과도 맞아야 하는 일이 많다. 지금은 포텐이 많이 알려져 덜하지만, 초반에는 인근 상가에서 장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거리 청소년의 문제를 미래 세대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도 함께 조성돼야 할 시점이다.

“일반 상담실은 보통 짜인 규정대로만 하는데, 이곳에서는 ‘날것’ 그대로를 접할 수 있는 리얼 현실이 펼쳐집니다. 포텐은 진로와 생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뜨거운 장소이며, 위기 청소년의 마지막 출구이기도 합니다.” (오주영 간사)
 포텐의 활동가들은 찾아가는 거리 상담 활동과 더불어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리 청소년과 온몸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 현장에서 거

더 큰 위험 막는 현실적 상담과 교육

포텐에는 진료 외에도 상근 소장을 포함한 9명의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활동가가 거리 상담을 진행한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 때문에 약물 남용이나 매춘, 도박 등의 문제와 부딪히며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활동가들은 청소년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긴급 서비스·귀가 또는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리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발생을 주목하며, 필요한 해결 과제를 고민하고, 참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 집단이다. 포텐의 활동가들이 만든 '거리 청소년 1차 문진표'를 보면 이들이 거리 청소년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교보건복지법에 따르는 건강검진 문진표로는 거리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거리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고민한 끝에 개발한 것이다. 문진표에 있는 '지난 1년 동안 같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는 항목으로 우울증 정도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거나 '일주일 내에 생식기 주위에 수포가 올라왔다'는 항목으로 정신 건강과 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진료버스를 찾을 수 없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거리 청소년들의 패턴이나 생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지키는 포텐이 있어 거리 청소년도 건강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포텐, 있어줘서 고마워요! ❀



4



활동가의 러브 레터

사랑의열매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오주영 간사입니다. 나눔과꿈 지원 사업으로 달라진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쉼터가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20년 된 낡은 중고 버스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동 진료의 핵심인 버스가 백팔십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덕에 쾌적하고 밝은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전 버스는 클랙스도 울리지 않고, 시동 꺼지는 일도 다 반사라 곤란한 일이 많았답니다. 시동이 꺼지면 냉장고도 꺼지기 때문에 안에 넣어둔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다가 상한 음식과 마주할 때의 안타까움이란! 현장에서 건네는 시원한 음료 한 잔, 작은 간식 하나는 거리 청소년에게 관심과 위안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속상한 일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버스가 교체되고 상담실에 커튼을 달면서 좀 더 편안한 일대일 상담도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문만 열어도 훤히 보이는 공간에서 개인 상담을 이어가 친구들이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웠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에겐 작고 소소한 변화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쾌적한 진료버스, 배려의 상담 커튼, 위안을 담은 간식 하나가 거리 청소년에게는 큰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신경 쓴다는 것이니까요. 모두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현장에서 거리 청소년과 함께하며 사랑의열매의 사랑을 앞으로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직원이 나눔 일심동체 보여주는 동우화인켐(주)

성장과 나눔의 선순환, 희망의 씨앗으로 뿌리내리다

동우화인켐(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연 매출 2조 원의 강소 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회사와 임직원이 더 큰 나눔 활동을 펼친다.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 경영을 가능케 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철학 때문이다. 동우화인켐은 기업의 나눔과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이고 있다.

글 강보라 사진제공 동우화인켐



2018년 1월 동우화인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평택시와 사회 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

동우화인켐(주)은 2018년 1월 경기 사랑의열매, 평택시와 사회 공헌 협약식을 체결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천한 사회 공헌 사업을 사랑의열매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평택시, 나눔의 열매를 맺다'에 9,600만 원을 기탁했다.

평택시 모금 목표액은 7억 원. 목표액의 1%인 7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는 1도씩 오르기로 돼 있다. 그런데 동우화인켐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단번에 13.7도나 켄중 올랐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나눔의 온기

사랑의열매 기부는 이전부터 계속 이어온 활동이다. 2018년에도 약 9,100만 원을 전달해 당시 평택시의 목표액인 5억 원 가운데 18%를 동우화인켐에서 채운 바 있다.

동우화인켐은 2016년에도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렇게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모금액은 저소득 중·고등학생 90명에게 약 1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익산 공장도 꿈과 희망을 지니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마음을 모아 2018년 8,663만 원, 2019년 8,835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은 “저희의 꿈을 응원하고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겠다”며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동우화인켐이 지역사회에 전달한 금액으로 나눔의 체감온도도 한층 높아진 셈이었다.



● 1 평택역 앞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동우화인켐은 9,600만 원을 기탁했다.

세상을 바꾸는 성장과 나눔의 시너지

사실 동우화인켐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기업일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숨은 주역 같은 기업이다. 1991년 설립해 경기 평택과 전북 익산에 소재지를 두고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동반'이란 신념 아래 정보 전자 소재 산업계에서 정상으로 우뚝 섰다. 반도체와 TFT-LCD 제조 시 필수 소재로 사용하는 고순도 케미컬, 에치엔트, 리지스트, 컬러필터 및 편광필름의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 폴더블폰의 투명 PI를 하드 코팅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우화인켐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2017년에는 제52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금탄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우화인켐의 자산 가치는 2016년 1조 9,502억 원, 2017년 1조 9,895억 원, 2018년 2조 1,936억 원, 2019년 2조 3,823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나눔의 크기도 커가며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나눔이 커지는 과정에도 회사의 성장은 주춤하지 않았다. 무한 성장만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 아닌, 중·장기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환경·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확고한 기업 철학이 통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나눔이 선순환을 그리며 동반 성장한 셈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나눔의 주체가 동우화인켐의 임직원이란 점이다. 임직원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자발적으로 모으고, 1년간 모은 금액만큼 회사가 같은 비율로 추가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나눔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눔의 마음이 큰 동우화인켐이 매년 빼놓지 않고 하는 활동이 있다. 동우화인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한 'Fund Together'는 직원이 월급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희망 기부해 모은 금액으로 장학금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가정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1년마다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 일은 10년



- 1 'Fund Together'을 통해 모은 금액을 전달한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
- 2 동우화인켐(주) 임직원은 매년 5월마다 보육원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매년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마라톤 대회는 장애인에게 희망과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반인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취지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손잡고 6.5km를 완주하는 행사다. 해마다 4월이면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에 동우화인켐 임직원과 장애인이 함께 손잡고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을 볼 수 있다. 동우화인켐은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동우화인켐의 봉사 동호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집수리 봉사과 결식아동을 위한 요리 봉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가 사내에 방문, 임직원이 헌혈에 동참한다. 평택·익산의 직원들은 연 7회에 걸쳐 헌혈 봉사를 하며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옷, 신발, 가방, 책, 식기 등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한 후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2

생각하고 실천하는 '같이'의 가치

2018년부터 동우화인켐 임직원이 새롭게 시작한 또 하나의 나눔 활동이 있다. 지역의 보육원과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는 일이다. 가정의 달 5월이면 마음을 모은 기부금(상품권)을 가지고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실내 강당에서 신발 날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미니 올림픽을 하며 즐거움과 건강함을 동시에 선물한다. 기부를 넘어 보육원 아이들과 직접 교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날이 쌀쌀해지는 11월이면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아 상품권을 전달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왕래가 적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과 함께 석고 방향제와 비누 만들기 같은 것을 하며 어르신들의 소근육을 키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시간을 보낸다. 따뜻한 나눔의 향기가 퍼지는 시간이다. 동우화인켐 관계자는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당사 자원봉사자들도 어르신과 함께함으로써 유대감을 높이는 데 많



3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 해마다 요양원을 찾아 상품권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석고 방향제, 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은 도움이 되었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한다.

동우화인켐(주)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성장과 나눔이 선순환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이 뿌린 나눔의 씨앗은 또 다른 희망으로 자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



4, 5 동우화인켐(주) 직원들은 사용 가능한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고 수익금은 기부한다. 6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가 정기적으로 사내를 방문해 직원들이 헌혈 봉사를 한다. 7 장애인과 손잡고 6.5km를 완주하는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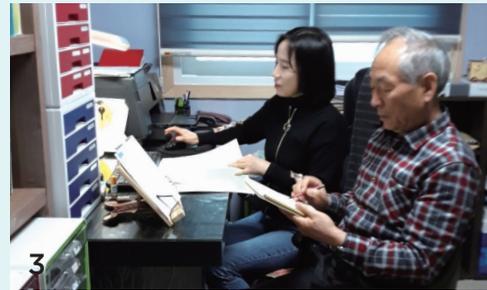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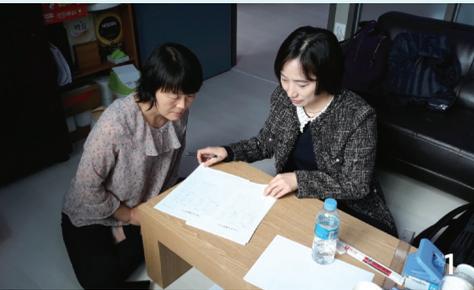


“회계 마스터의 꿈, 찾아가는 회계지원단이 이뤄드립니다”

사랑의열매는 회계 교육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취약 기관을 돕기 위해 2019년 부터
‘찾아가는 회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회계 교육으로 특화된 유한책임회사
‘이든’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기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글강보라 사진제공 유한책임회사이든



정읍의 한 수행 기관에서는 구성원 모두 회계 교육을 받았다.



1 이든의 김명숙 대표가 사업 담당자에게 일대일 회계 교육을 하고 있다. 2 질의응답도 진행하며 단순 교육이 아닌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3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기관에 맞춤 교육을 함으로써 기관의 교육 만족도가 높다.

CASE 1 잘못된 회계 정보가 천리를 간다

부산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20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잘못된 회계 정보가 상식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지출이나 개인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든의 김명숙 대표 설명에 놀란 담당자는 주변 지역의 아동센터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아동센터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다른 아동센터의 담당자들도 달려와 이든의 회계 교육을 함께 받았다.

CASE 2 회계 교육도 백문이불여일견

회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취약 기관에서는 수행 안내 자료 등 담당자의 안내를 받지만, 이해도가 낮아 집행 후 사업 서류를 취합하는 데도 애를 먹는다. 이럴 때 이든이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체크해주니 확실한 회계 교육이 이루어진다. 회계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는 “표준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정산보고서 등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에서도 집체 교육을 진행하는데 기관마다 이해의 편차가 크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든이 기관에 찾아가 맞춤 회계 교육을 하는 것이다.

CASE 3 정확한 확인은 회계의 기본

경북 안동의 한 수행 기관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확인을 받고 나

니 걱정을 덜었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다른 수행 기관도 “여기저기 물어도 다르고 신뢰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확실히 배우고 안심을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처음 배분금을 받고 집행한 기관들은 본인들이 취합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했고, 예산안의 세세목을 맞게 쓰려는 노력을 했다. 회계 전문 기관의 확인으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MINI INTERVIEW

“회계 교육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전주 복지교회 김성철 본 기관은 전주 지역에서 소규모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사랑의 쌀 나누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하는 일을 11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10여 명의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30만 원으로 활동했지만, 사랑의열매 배분금을 지원받으며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사업이 확대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담당자는 처음 경험하는 배분금 회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수증이나 잘 챙기면 되는 건 줄 알았다”던 담당자는 이든의 교육으로 장부 정리부터 이제 확인증,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까지 배분금 회계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었다. “회계 교육 덕분에 쌀을 구입할 때도 도움이 됐어요. 비교 견적표를 뽑고 경쟁입찰을 붙여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좋은 쌀을 싸게 살 수 있었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항변하던 김성철 담당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의 타당성에 감탄을 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이보다 더 투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단계가 배워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회계지원단’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e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난 달라 달라~ 나눔 판도를 바꾸는 新인류 밀레니얼 세대

X세대, Y세대 등 그 시대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는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등장만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유행을 이끌고 있다. 기부와 나눔 분야 역시 이들의 영향을 받으며 '밀레니얼 세대 효과'를 보고 있다. 클이선희

참고 자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기부생태계 변화에 따른 현황분석과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2019))

나를 표현하는 '가치 소비'가 뜬다

가치 소비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소비 트렌드의 단면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단, 과거에는 이런 소비 움직임이 특정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일종의 메가 트렌드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는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이 크다. -〈한경매너〉 2019년 11월호

밀레니얼 세대, 너희가 궁금하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약 22.2%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며, 소유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길 선호한다. 대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정보 검색에 능숙하며, 삶의 많은 영역이 모바일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 가치를 표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성향이라 우리 사회에 파급력이 크다.

22.2%



밀레니얼 세대의 나눔 키워드 ①

개념템 '굿즈'는 필수

굿즈(goods)는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파생한 상품을 의미했지만, 최근 들어 대중문화는 물론 각 사회, 정치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나눔 분야에서도 굿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기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굿즈를 받거나, 구매한 상품(굿즈)의 금액 중 일부가 기부되기도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부 굿즈를 활발하게 구매하고,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기부 굿즈는 SNS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기부하는 사람끼리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기존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나가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밀레니얼 세대의 나눔 키워드 ② **기부도 즐겁게 '퍼네이션'**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가 결합한 용어로, 밀레니얼 세대의 기부 문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금전적 기부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이나 활동을 하면서 기부도 하고 즐거움도 동시에 얻는다. 또 나눔은 부담스럽고 진지한 행위라는 기존 인식에서 탈피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고 즐겁게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나눔 키워드 ③ **나의 기부를 'SNS'에 널리 알려라**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일상과 관심사를 SNS를 통해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다. 나눔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기부 활동을 '인증'하며 SNS에 적극적으로 알리므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SNS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인플루언서에게 강한 감정적 애착을 느끼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플루언서들의 기부 참여와 활동에 영향을 받아 모방 기부 행동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이타주의적 동기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부에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 메우고 주거 빈곤 청년에 세어하우스 지원하고...

사랑의열매가 하는 일, 이제야 비로소 알았네

글 최진주 한국일보기자 사진 한국일보

‘오늘도 90도가 안 됐네. 이리다 1월 말까지 100도 달성 가능할까?’ 매일 아침 출근길에 광화문 앞을 지나다 보면 꼭 사랑의온도탑을 확인하는 나를 발견한다. ‘올해 겨울 날씨가 너무 따듯해 모금이 어려운가’, ‘경기 불황이라서 그런가’ 생각이 꼬리를 문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의열매에 대한 내 인식은 단순했다. ‘겨울에 사랑의온도탑 세우고 모금하는 곳’, ‘가난한 이웃에 생활비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곳’ 정도. 게다가 2010년 복지부 종합 감사에서 일부 지회가 성금 일부를 유혹비로 쓴 것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건은 흐릿하지만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다. 이 때문인지 여러 비영리단체(NPO)나 온라인 매체 등에 소액 정기 후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6년 12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정규성 당시 회장과 함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기자협회 회원인 기자들의 회비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하면서부터였다. 2018년과 2019년 말에도 역시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기자협회 성금을 전달했는데, 기자협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연말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기자들이 이렇게 전달한 성금은 어떻게 쓰일까, 혹시 10년 전처럼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광고비와 인건비 등 본래 목적과 다른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성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2016년 말

첫 방문 때부터 생긴 이러한 의문은 2018년 복지부 출입기자가 되면서 점차 풀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모금회 운영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매년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었다. 경영 상태도 투명하게 공시한다. 현재 사랑의열매 웹사이트에는 직원 평균 보수, 기관장 업무 추진비,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비, 임원 해외 출장 정보까지 세밀하게 공개돼 있다. 톱스타 홍보대사나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를 내세워 TV 광고를 하고, 가두 모집, 인터넷 광고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민간단체에 비하면 광고 홍보와 인건비 등으로 쓰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신뢰도와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풀렸지만, 매년 연말 모이는 그 많은 모금액을 어디에 쓰는지는 정확히 몰랐다. 이전까지는 사랑의열매가 온도탑을 중심으로 모금 자체를 홍보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였지 어디에 배분하는지를 알리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안 것은 지난 연말 연재한 한국일보·사랑의열매 공동 기획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취재가 계기였다.

첫 번째 기사의 수혜자인 은진(가명, 24) 씨를 만난 것은 12월 2일,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였다.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온 후 구미의 공장에 다니던 은진 씨는 공장이 문을 닫아 새롭게 구한 일자리인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



최진주 기자는 200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19년 차 베테랑 기자다. 경제부와 디지털뉴스부, 국제부, 산업부 등을 거쳐 현재 정책사회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장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일보 지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12월에 연재한 한국일보-사랑의열매 공동기획 '나눔의 세상을 바꾼다'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01 네트워크' 수혜자로 소개된 은진씨(좌). 그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우)도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고 있다는 점도 전한 것이다. 사회적인 때문에 취직하기 매우 어려운 조현병 환자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주거 빈곤 상태이던 20대 마을 활동가를 위해 살 곳을 제공하는 셰어

다9월의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은진 씨는 2형당뇨 환자였고, 이에 따른 합병증까지 이미 진행돼 시력과 치아 등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다. 병원에서 제대로 진찰받은 적이 없어 복통이나 다리 통증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당뇨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혹시나 아버지가 찾아올까 지자체에 생계급여 등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한 은진 씨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열심히 살아온 은진 씨 주변엔 그를 도와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친부모처럼 백방으로 도울 방법을 알아보며 노력한 편의점 사장 부부, 합병증으로 우수수 빠진 이를 모두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해주겠다고 나선 치과 의사, 주거급여 신청을 해주고 원룸을 구해준 주민센터, 그리고 사랑의열매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지원 사업 수혜자로 은진 씨를 등록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해준 순천향대 구미병원 변정숙 사회사업실장(의료사회복지사). 이들의 도움으로 한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던 은진 씨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난 은진 씨를 만난 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물론 복지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촘촘하게 설계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며, 복지 예산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미진한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 성금이 당장 힘든 이에게 정말 요긴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번 기획의 특징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직접적 도움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분야에 사랑의열매 모금액을 사용하

하우스 사업, 경력 단절 주부들의 숨은 재주를 발굴해 업사이클링 환경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돕는 사업, 동영상 유료 협박으로 불안에 떠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사업 종류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부를 하더라도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자신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나 역시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연말 사랑의열매에 10만 원을 기부했다. 출근할 때마다 사랑의연도탑 온도를 확인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기자는 출입처와 불가근불가원 관계여야 하는데, 애정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애정만큼이나 기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



이은진(가명) 씨가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 씨는 '301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2형당뇨와 합병증 치료를 받고 있다.

용감한 가수 에이톤 나눔리더 가입

“귀 호강 음악으로 받은 사랑 보답하고 싶어요”

데뷔한 지 이틀 만에 가수 에이톤(A.TONE)의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했다.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하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는 등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용감한 시민상 상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며 대중의 ‘폭풍 칭찬’ 세례를 받고 있다.

글 김지수 사진 이승재 사진제공 효자동사진관

용감한 시민상 받자마자 나눔 실천

에이톤은 지난해 11월 28일 <발라드>라는 미니 앨범으로 데뷔한 신인 가수이자 작곡가다. 겉보기엔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알고 보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은 ‘상남자’다. 지난 12월 20일 에이톤은 마포경찰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제압한 공을 인정받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그리고 시민상을 받자마자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로 달려왔다.

“제가 상을 받긴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니 검거 보상을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리누 형에게 전





새해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산행에 나선 에이톤

화해서 물어봤어요.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절친한 사이인 가수 리누는 지난해 3월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당시 에이톤은 리누의 작업실을 찾아가 “형(리누)의 나눔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이라며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처럼 에이톤도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리누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해 우연히 본 희망2020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탐 기사가 결정적이었다.

“검거 사건 이후에 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지난겨울에 유난히 기부금이 적어서 사랑의온도탐의 나눔 온도가 낮다는 기사를 봤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부 민심도 위축됐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에이톤은 많은 예술인이 성과를 내기까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자신도 일이 늘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포상금을 전액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금액일 텐데, 사비까지 더해 총 1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평소 기부를 하면 좋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있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포상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으니 기부를 하는 게 당연하고, 이 기회를 빌려 저도 기부에 동참하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호되게 혼난(?) 기분 좋은 반응

에이톤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방학 때마다 손수 돈가스 무료 쿠폰을 만들어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말고 본인의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배려였다.

“어머니께서 제가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쩔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웃음)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셨고요. 커뮤니티나 음원 사이트에도 칭찬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국내 네티즌들은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혼내주겠다”며 애정 섞인 댓글을 달았고, K-pop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등 열렬한 사랑 고백이 이어졌다. 올해 초에는 2019년을 빛낸 의인으로 선정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차산 산행을 하며 해돋이를 보는 잊지 못할 새해를 맞이했다.

“산행 후에는 청와대 관저에 초대해주셔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끓여주신 떡국을 먹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찬을 했어요.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였죠. 많은 분께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이니까 ‘귀 호강’ 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는 사랑의열매에 나눔 관련 공연이 있다면 리누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가수, 사랑의열매 나눔리더까지, 데뷔 몇 개월 만에 에이톤 이름 앞에 붙을 수 식어가 많아졌다. 머지않아 수식어가 하나 더 붙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믿고 듣는 가수 에이톤’이라고 말이다. ❀

에이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홈대 작업실





김정숙 여사, 가수 설현 등 사랑의열매 '착한마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가수 설현, 팝페라 가수 임형주 등이 사랑의열매 지정 서울시 1호 '착한마을'을 방문했다. 신규 착한가게 현판식과 지역 기부자들과의 만남까지 훈훈한 하루를 보냈다. 글강은진 사진 한국경제

지난달 22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 위치한, 사랑의열매에서 지정한 서울시 1호 '착한마을'이 떠들썩했다. 사랑의열매 명예 회장인 김정숙 여사가 착한마을을 방문해 기부자들을 격려하는 특별 행사가 있었기 때문. 착한마을은 사랑의열매 정기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에 가입한 기부자가 많은 마을이다. 개봉2동 착한마을은 착한가게가 24곳, 착한가정이 8곳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팝페라 가수 임형주와 아너 사이어티 회원인 가수 설현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제일 먼저 착한가게에 가입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나눔을 소재로 한 '장갑'이란 동화를 들려주며 일일 나눔 교

육 강사로 나섰다. 가수 설현은 동화책을 넘겨주며 진행을 도왔다. 김정숙 여사는 "국민 누구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기부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못 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그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착한마을 주민들의 나눔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힘든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사랑의열매와 함께한다는 설현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눔을 더 알리고 싶다"고 말했으며, 10년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임형주는 "계속 나누다 보니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카페의 착한가게 현판식, 착한마을 지역 기부자 간담회 등으로 훈훈하게 이어졌다. ❀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편견을 깬 유튜브 광고로 선정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TV 광고만큼이나 유튜브 광고가 지니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YWCA는 유튜브 광고 콘텐츠의 유해성이나 차별 요소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중 편견을 깬 광고 일곱 편을 선정했는데,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도 포함되어 있다. 클이선희 자료 서울YWCA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모니터링 기간 내 유튜브에 노출되는 광고 총 524편을 분석했다. 이 중 일곱 편이 성차별적 통념을 깬 광고로 선정되었다.

〈사랑의 열매〉 2019년 연중 광고 편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누아르 영화처럼 연출한 광고에 배우 전혜진이 권위 있는 역할로 등장한다. 지금까지 언론 매체의 누아르 장르라고 하면 남성 전유물로 여기며, 여성은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에선 여성이 누아르 장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묘사했다. 권위 있는 역할은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한 사례로 꼽혔다.

이 외에도 역동적 여성의 이미지를 제시한 〈디스커버리 운동화×파쿠르 퍼포먼스〉, 여성은 제품의 기능보다 디자인을 중요시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애플 흑백 프린터〉, 시니어 모델들이 패션 프로그램 광고로 등장한 〈현대백화점 TV〉, 박막레 할머니를 모델로 내세워 나이 든 여성의 이미지를 바꾼 〈서브웨이〉,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임을 표현한 〈저출생 캠페인〉이 좋은 유튜브 광고로 선정됐다. 🍀

MINI INTERVIEW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간사 황경희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를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동안 플레이된 광고는 모두 대상에 포함됐고요. 〈사랑의열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편견을 깬 광고 일곱 편 중 〈사랑의열매〉 광고가 대표적으로 소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의열매〉 광고는 TV 광고로도 방영되어 많은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에서 주로 남성이 맡은 역할에 여성을 배치한 부분이 다른 광고보다 명확하게 설명되어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할 거라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랑의열매〉 광고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편견을 깬 일곱 편 광고 중에서도 아쉽거나 살짝 미흡하게 느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열매〉 광고는 아쉬운 부분이 없어서 따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영화배우 전혜진이 함께 한 사랑의열매의 2019년 연중광고 한 장면

제12회 사랑의떡국 나눔 행사

“진한 떡국 한 그릇으로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설을 앞두고 사랑의열매와 신선설농탕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신선설농탕의 임직원과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의 봉사자들은 서로 소속은 달랐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떡국을 포장했다.

부지런히 손을 맞춘 이들의 훈훈한 봉사 현장을 취재했다. 글 김지수 사진 이승재



지난 1월 16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신선설농탕과 함께 설맞이 ‘제12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랑의 떡국 나눔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신선설농탕에서 준비한 떡국 재료를 포장해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를 돕기 위해 신선설농탕 임직원과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 봉사자 25명이 참여했다. 신선설농탕 한승옥 이사는 “명절에 따뜻한 떡국으로 정을 나누고자 2009년부터 매년 1004인분씩 떡국 나눔을 해온 것이 어느덧 12년째가 되었다”며 행사를 소개했다. 작년까지는 떡국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았지만, 올해는 환경을 생각해 종이 가방으로 바꾸었다. 구성은 떡과 양지고기, 대파, 소금, 김치로



4인분씩 푸짐하게 담았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노원구 윤종춘 회장은 “어르신들이 떡국을 끓여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상상하며 즐겁게 포장했다”며 봉사에 임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신선설농탕 당산점 하은희 주임은 “이번에 승진한 관리자

들이 참여했는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며 웃음 지었다.

포장을 마친 떡국 1004인분은 그날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을 통해 바로 전달했다. 떡국처럼 진하고 따뜻한 봉사자의 마음이 전해져 어르신들이 속까지 뜨끈한 설을 맞이했기를 바란다. ❀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한 신선설농탕 임직원 및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 자원봉사자들



6개월간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열매톡톡' 4기

이보다 '톡톡' 될 수 없다!

사랑의열매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 4기 해단식

지난해 무더운 여름에 만난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이 6개월간의 정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유쾌함이 가득하던 열매톡톡 4기 모습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열매톡톡 4기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사랑의열매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종 1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이들은 7월 8일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해 6개월 동안 사랑의열매 SNS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15명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그 어느 기수보다 적극적이고 팀워크가 좋은 열매톡톡이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 해단식에서는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함께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서포터즈 박하늘 씨는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지하철 모금함이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사

랑의열매가 생각나고, 현금이 있으면 슬쩍 넣어본다"며 사랑의열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서포터즈 장지은 씨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밝게 웃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그 어느 기수보다 왕성하게 활동하며 '톡톡' 된 4기 열매톡톡이들. 그들과 아쉽지만 뜨겁게 인연을 외쳐본다. ❀

중앙회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왼쪽)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우리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 기부

지난 1월 13일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하 우리금융)이 이웃사랑 성금 3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식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금융은 매년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했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10억 원 많은 30억 원을 기부하며 통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금융이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기탁한 성금 30억 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나눔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쪽방 주민들 12년째 기부 참여

캠페인 종료 4일을 앞둔 지난 1월 28일 인천 만석동 등 쪽방 주민들과 인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 노인 등이 불펜 조립, 폐지 수거 등으로 마련한 성금 168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쪽방 주민들의 기부는 지난 2008년 12월 성금 87만 1,610원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회 성금을 전달했으며, 누적 기부액은 1,570만여 원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민 대표 김정남 씨는 다 쓴 가스통을 개조해 만든 저금통에 20여 만 원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며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 참여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아주신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천내일을어는집 이준모 이사장(왼쪽 두 번째)과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인천 쪽방 주민 대표 김정남 씨(앞줄 왼쪽 세 번째)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SGI서울보증,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착한일터 동참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김상택 사장)이 서울 사랑의열매 착한 일터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년도 임직원 봉사 시간 1만 1,000시간에 대한 매칭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기존 방식과 다른 착한일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연간 임직원 봉사 활동 시간당 회사가 1만 원씩 매칭 기부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기부 문화 저변 확대와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양조씨대중회 조성진 회장, 아너 가입

한양조씨대중회의 제18대 회장 조성진 씨가 지난 1월 16일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성진 씨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정암 조광조 선생의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도학 정치사상과 백성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치를 도모하는 향약 사상을 널리 알려 후대에 귀감이 되고자 한다. 가입식에서 조 회장은 “나의 나눔이 한양조씨 중중에 전파되어 더 많은 나눔이 순차적으로 이뤄나가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



(주)자산물류, 나눔명문기업 경기 4호 가입

(주)자산물류(대표 박종선)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고 나눔명문기업 4호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중견·중소 기업을 위한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이다. 가입식에는 (주)자산물류 박종선 대표와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종선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함으로써 경기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어려운 곳에 희망을 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에서 2020년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 내 야간보호교사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올해 27개 지역아동센터에 8억 1,500만여 원을 지원한다. 전달식 후에는 사업비 진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7개 기관 실무자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강원



하나님의교회,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성금 전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강원대회(목사 배동기)는 지난 1월 13일 강원 사랑의열매 사무실을 찾아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지역의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를 넘겨 설 명절을 맞게 된 것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배동기 목사는 “이재민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정성을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춘천시나눔봉사단, 설 명절맞이 행복박스 지원

지난 1월 22일 춘천시나눔봉사단(단장 이월선)은 명절을 맞아 춘천 시내와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300가구를 위해 한과, 국수, 통조림 등 식료품을 지원했다. 2013년에 창단한 춘천시나눔봉사단은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관내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월선 단장은 “설 연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과 우리 이웃을 위해 준비했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남



경남 도민 위해 설 위문금 5억 원 전달

경남 사랑의열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경남도청을 찾아 김경수 도지사에게 설 명절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했다. 도민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마련한 이번 위문금은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1만 세대를 우선 선별해 5만 원씩 지원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5만 원씩 지원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1만~2만 원도 큰 힘이 되므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10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경상남도의회에서 김지수 의장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경남의 지속된 경기 침체로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김지수 의장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리더 가입에 참여해 따뜻함을 더했다. 김지수 의장은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힘을 보탬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경북



김병현 경사, 포상금 기부로 나눔리더 가입

안동경찰서 김병현 경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14층 난간에 매달린 자살 기도자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수갑으로 연결해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생명보험재단 주최 생명존중대상 경찰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김 경사는 표창과 함께 수여받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경북 사랑의연대에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그는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6억 7천만원 상당 '설 명절 행복나눔' 성금·성품 지원

경북 사랑의연대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9,400세대에 총 6억 7,0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9,000세대에 각각 7만 원씩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청도·울진군 관내 이웃 400세대에는 떡국 떡, 과일, 한과 등 다양한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행복나눔 키트를 전달했다. 앞서 행복나눔 키트는 지난 1월 14일, 21일 양일에 걸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사랑의연대 나눔봉사단원이 직접 포장해 전달을 마쳤다.

광주



광주은행, 광주고향사랑기부금 1억 5,000만여 원 전달

지난해 12월 3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 사랑의연대 한상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주·전남사랑카드는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것으로, 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랑의연대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 1억 5,000만여 원을 광주 사랑의연대에 전달했다.



어패럴컴퍼니, 1억 5,000만 원 상당 의류 기탁

어패럴컴퍼니는 지난 1월 13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3,000여 벌을 광주 사랑의연대에 기탁했다. 어패럴컴퍼니 김민주 대표는 “기업이 국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님 뜻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 전달하는 의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구



에스엘서봉재단, 사랑의 온도 4.4도 올려

대구의 대표 기업 에스엘서봉재단이 지난해 12월 26일 이웃사랑 성금 4억 4,000만 원을 기부했다. 2013년 아너에 가입한 에스엘 이충곤 회장이 설립한 이 재단은 지역사회 인재와 우수 연구 단체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대구 사랑의열매를 통해 장학생 60명을 선발해 각각 5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1억 4,000만여 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천동, 대구 지역 네 번째 착한마을 선정

지난해 12월 19일 동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착한마을 선포식이 열렸다. 착한마을은 '착한대구 캠페인'을 통해 정기 기부에 참여하는 가정, 가게, 일터 등의 기부자가 100군데 이상 되는 마을로서 대구 사랑의열매가 선정한다. 착한마을 선포식 당시 동천동의 정기 기부자는 117명으로, 대구시 착한마을 중 가장 많은 수이다. 동천동의 착한마을 기부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특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전



3명 동시 가입으로 대전 나눔리더 100호 탄생

대전 사랑의열매는 2019년 핵심 추진 사업으로 한 해 동안 100명의 회원 가입을 목표로 '100인의 나눔리더 기부 릴레이'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한재득 회장이 나눔리더 98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지회 윤태연 부회장이 99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지회 김양수 회장이 100호로 동시에 가입하면서 2019년 100인의 나눔리더 기부 릴레이 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주)위드텍, 유승교·우현실 부부 아너 가입

지난해 12월 23일 (주)위드텍 유승교 대표이사와 부인 우현실 씨가 각각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75호, 76호가 되었다. 유 대표는 "평소 '나눔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에 아내와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라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11쌍이던 대전의 부부 아너는 유승교·우현실 부부가 가입하며 12쌍으로 늘어났다.

전남



고흥군수협,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지난해 12월 30일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고흥군수협)은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2017년부터 매년 1억 원씩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고흥군수협은 이로써 3년 연속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홍재 고흥군수협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업인과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과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다”라며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고 싶은 뜻을 밝혔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회원 일동 성금 전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이웃사랑 성금 1,737만 원을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원들은 1998년부터 매년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총 3억 2,721만 원의 성금을 모으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재영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나눔에 참여해준 법무사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제주



사단법인 제주복지회, 5,000만 원 기탁

지난해 12월 24일 사단법인 제주복지회(이사장 양태원)는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보내 사회 복지시설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제주복지회는故 양정규 이사장이 1975년에 설립한 곳으로, 45년간 25억여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 사랑의열매에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성금을 기탁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억 1,500만 원에 달한다.



원일대장간, 18년째 기부를 이어온 나눔 대장장이

제주오일시장에서 원일대장간을 운영하는 이승태 대표가 지난 1월 13일 제주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보내 이웃 돕기 성금 133만 4,910원을 전달했다. 이승태 대표는 2003년부터 칼을 갈아주고 받은 수고비를 모금함에 모아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한 이승태 대표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은 것 같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시 천북굴단지, 착한가게 단체 가입

지난 1월 16일 충남 보령시 천북굴단지에서 착한가게 11개소의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11개소는 1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충남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게 되며, 모금한 성금은 향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청수굴 수산 조행성 대표는 11개소의 착한가게 참석자를 대표해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에서 더 나아가 천북굴단지 내에도 착한거리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기금 전달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TSP총괄은 지난 1월 15일 아산시(시장 오세현)를 방문해 아산시 16개 사회복지 기관이 추진하는 ‘2020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삼성전자 TSP총괄이 아산 지역 복지 기관에 봉사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삼성전자 TSP총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아산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세종맘카페, 착한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

지난 1월 15일 온라인 카페 세종맘카페(대표 정연숙)와 세종 사랑의 열매가 세종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착한나눔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종맘카페의 친구 업체를 대상으로 착한가게 가입 제안과 맘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착한가게 가입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맘카페는 2018년 세종지회 나눔리더스 클럽 2호에 가입하며 김장나눔, 연탄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며 세종 사랑의열매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어린이집 원생들,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김인숙 회장이 지난 1월 3일 제6회 사랑의 열매 대상에서 기부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김인숙 회장은 2014년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세종시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저금통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2019년까지 총 1억 5,0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세종시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을 지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문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배려심 강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주)선광,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 전달

지난해 12월 30일 (주)선광이 계열사인 (주)화인파트너스, (주)휠라선과 함께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주)선광은 인천의 대표적 전문 물류 기업이자 항토 기업으로, 2000년부터 꾸준히 연말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주)선광 김창성 부사장은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은 물론 나눔의 전통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성운수(주), 새해 첫 나눔명문기업

지난 1월 2일 공성운수(주)(대표 심재선)가 1억 원을 기탁하며 인천 나눔명문기업 5호에 가입하며 의미 있는 새해를 맞았다. 특히 공성운수(주) 심재선 대표는 인천아너 소사이어티 5호 회원이기도 해 또한 숫자 '5'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심대표는 “나눔을 통해 인천이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되길 바라며, 나눔명문기업처럼 인천이 나눔명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부산, 일곱 번째 패밀리 아너 탄생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16호 회원인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의 세 아들이 아너로 동시에 가입했다. 장남 장호익(동원개발 사장), 차남인 장재익(남양개발 대표이사), 삼남인 장창익(동원통영수산 대표이사) 씨는 각각 184호, 185호, 186호 회원이 되면서 부산 일곱 번째 패밀리 아너가 탄생했다. 장복만 아너는 “4부자(父子)의 아너 가입이 나눔의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아너 회원이 탄생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 문화복지공간, 공예품 판매 수익금 기부

(사)문화복지공간(대표 이경혜)에서 운영하는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훈련생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한 공예품의 수익금을 지난 1월 13일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발달장애 청년 훈련생들이 공예교실에서 만든 다양한 공예품을 프리마켓 등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모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다. 이경혜 대표는 “기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한 경험을 했다”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충북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성금 전달식

지난해 12월 24일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강국모 청주노조위원장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로 골퍼 김해림, 팬클럽과 삼계탕 나눔 행사

KLPGA프로 골퍼 김해림(소속 삼천리)과 팬클럽 해바라기(회장 이희진)가 지난 1월 4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해림 프로와 전국에서 모인 팬클럽 회원 등이 참여해 720여 명의 어르신에게 뜨끈한 삼계탕을 대접한 것. 이 행사를 위해 김해림 프로와 팬클럽이 무료 급식 비용 500만 원을, 체리부로(진천군)에서 삼계탕 300마리를 지원했다. 김 프로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훈훈한 소감을 밝혔다.

전북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 1% 성금 전달

지난 1월 15일 전북은행은 이웃사랑 실천 임직원 급여 1% 성금 약 2,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전북은행 전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마련했으며, 향후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달한 급여 1% 성금으로 도내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따뜻한 점심을 나누는 ‘사랑 한가득 주먹밥’,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JB멘토링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해 따뜻한 전북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전북도시가스, 19년째 사랑의 쌀 전달

설을 앞두고 전북도시가스(대표이사 김홍식)는 2,200만 원 상당의 쌀(20kg 446포대)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북도시가스의 사랑의 쌀 기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도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홍식 대표이사는 “쌀을 전달받으신 모든 분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응기 가득한 설 인사를 전했다.

울산



S-OIL울산복지재단, 2억 4,600만 원 상당 기부

지난해 12월 18일 S-OIL울산복지재단(이사장 박봉수)은 기부금과 주유 상품권 총 2억 4,600만 원 상당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중 1억 원은 난방용 주유 상품권으로 전달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나머지 1억 4,600만 원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 사업과 22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복지 사업에 쓸 예정이다. S-OIL울산복지재단은 13년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설 명절 지원성금 1억여 원 전달

울산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20일 울산 시민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모은 성금 1억여 원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43개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대상자를 위한 공동 차례상 비용과 설 명절 선물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 사랑의열매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에도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울산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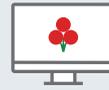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은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회
2230호



나윤주 나윤주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눔이란 없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
279호



승문수 ㈜크린 대표이사
채움의 기쁨이 하나라면,
비움(나눔)의 기쁨은 둘
이상입니다.

서울
280호



도재운 이지동안의원 대표원장
나눔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서울
281호



조성진 한양조씨대중회 제18대
회장 나눔은 행복이고, 용기이며,
도전입니다.

서울
283호



이서진 배우 저의 작은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서울
284호



이순재 배우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서울
285호



이윤정 ㈜퍼스트룩 대표
나눔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서울
286호



강효미 ㈜퍼스트룩 대표
나눔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경북
110호



권용호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에 나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지역 독지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113호



김용봉 와이쓰리(Y3) 대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에 동참하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웃을 위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남
93호



박원균 ㈜스타테크 회장
함께 나눔에 참여해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 공헌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이 되도록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전남
94호



장영철 일성레미콘㈜ 회장
나눔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생각하고, 저의 작은 나눔이
따뜻한 사람으로 전해져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138호



이순화 유진이앤지 대표·인천
130호 송석만 아너 배우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인천
139호



고삼석 ㈜엘엔케이시설물
대표이사 나눠줄 수 있는 삶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대전
75호



유승구 ㈜위드텍 대표이사
평소 '나눔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엔 아내와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대전 76호

우현실 대전 75호 유승교 아너 배우자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산 180호

김옥연 하운드호텔 회장 저의 나눔 실천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눔에 참여해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 184호

장호익 ㈜동원개발 사장·부산 116호 장복만 아너 장남 나누는 삶은 나와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산 185호

장재익 ㈜남양개발 대표이사·부산 116호 장복만 아너 차남 나눔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고, 사회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산 186호

장황익 ㈜동원통영수산 대표이사·부산 116호 장복만 아너 삼남 나눔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영리기업에서의 투자만큼이나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187호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곧 나의 사명이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부산 188호

황소웅 디에이치테크(주) 대표이사 나의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들의 큰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189호

배현열 하나금융투자 전문 금번 작은 결심으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춤지 않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 190호

장만영 ㈜디프로메트금고 회장 나눔은 나눌수록 더 커지며, 나눔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191호

엄웅성 ㈜한진실업 대표 부산 39호 엄기섭 아너 동생 더 늦기 전에 나를 키워준 이 사회에 대한 빛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192호

구정희 은성의로재단 이사장 부산 154호 문화숙 아너 배우자 지역에서 성장한 병원이 지역에 다시 보탬할 수 있는 길은 나눔이기에, 다양한 사회공헌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광주 103호

조영훈 ㈜대광건영 부회장 언젠가는 나눔 함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 104호

김재봉 신세계간과 대표원장 그동안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부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105호

장호직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이사장 가난하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광주 106호

전갑수 ㈜백양실업 회장 저의 아너 가입이 나눔의 불씨가 되어 광주 지역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 148호

이소원 ㈜양지전기 대표·대구 28호 이덕록과 48호 윤정희 아너 장녀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금이 잘 전달되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49호

김동수 ㈜대림프라콘 대표이사 앞으로 대구 아너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눔의 물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대구 150호

주희석 ㈜성림티앤티 대표이사 평소 주위에서 받은 많은 은혜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아너에 가입했습니다.



대구 151호

이재하 삼보모터스그룹 회장·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나눔 전도사가 되어 나눔의 기쁨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153호

안중수 ㈜태원씨앤씨건설 대표이사·대구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 앞으로도 나눔을 지속하며 대구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중앙** 익명, 김동욱
故 전지준 전 경기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경장

☀️ **서울** 예금해

☀️ **광주** 김주연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 **경기** 황호진 에이치모터스(주) 대표이사
☀️ **강원** 윤장훈 대원당 베이커리 대표
☀️ **충북** 김병국 (주)에코코리아 대표이사

☀️ **대구** 김태희 마음봄심리상담센터 센터장·(주)웰스타트 대표이사
김정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
박성빈 메트로안과 대표원장
박광범 (주)메가젠플란트 대표이사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최근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하려는 뜻이 담긴 웰다잉(well-dying)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사과나무 노트>를 통해 한 번쯤 웰다잉과 행복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행복한 추억을 돌아보는 기억의 기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삶의 기록인 <사과나무 노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멀어지고, 따뜻한 기부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유나라 충북 괴산군

● 11년째 소중한 성금을 전달하는 김규정·홍윤주 씨 가족 기사를 읽으면서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나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뇌 병변과 지체장애를 앓는 중증장애인 부부는 첫째 아들 임신을 기념해 전북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할 계기로 둘째 아들까지 11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쪼개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죠. 부모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기에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나눔인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첫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와 함께 작은 나눔으로 큰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모아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함께하려고 합니다. - 홍소진 서울시 양천구



● 1월 표지 모델인 스타 셰프 이연복 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롤모델이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연말이라 바쁜 와중에도 사랑의열매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동·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대접하고, 만두를 함께 빚으면서 친구들의 연말이 외롭지 않게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요리만 해온 이연복 셰프도 행사 현장에서 요리 인생 중 제일 긴장되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에, 얼마나 아이들을 위하고 아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연복 셰프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공 신화를 이룬 전형이자 멘토인데, 본인이 너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 힘주어 말하며, 이런 나눔을 한 발짝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은준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담요



텀블러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김응수
×
사랑의열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잉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